

# 《內經》의 歷代 注釋家와 注釋書에 관한 研究(I)

-全元起의 <素問調解>와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를 중심으로-

趙學俊·尹暢烈\*

## I. 緒 論

丹波元胤이 지은 <中國醫籍考>에 記載된 <內經>의 註釋家는 素問에 대한 注釋家는 45名이고, 靈樞에 대한 注釋家는 10名, 素問 靈樞를 합하여 注釋한 注釋家는 12名으로 되어 있다<sup>1)</sup>. 文獻上 記錄에 의하면, <素問>의 註解는 梁代의 全元起가 最初로서 그가 著述한 <內經訓解>는 宋朝가 南의 杭州로 遷都한 後에 亡佚되었다. 현재 林億 等의 新校正本에 依해 <內經訓解>의 卷名과 篇目を 알 수 있을 뿐이며, 모두 八卷 七十一篇으로 알려졌다<sup>2)</sup>.

그 다음의 注釋書로는 隋代의 楊上善<sup>3)</sup>이 著述한 <黃帝內經太素>가 있다. 이는 <素問> <靈樞>를 함께 註釋한 것인데, 原本은 역시 南宋代에 亡佚되었다. 多幸히 日本에 仁安 2年(宋代의 乾道 3年)의 刊行抄本이 남아 있어서 清代의 光緒年間에 日本에서 다시 復寫하여 中國으로 가져갔다. 이는 攝生 陰陽으로 始作하여, 氣論 雜病에 이르기까지 都合 三十卷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內經>에 대한 研究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內經>의 經文에 대한 注釋으로, 注釋할 때에 <內經> 자체의 醫理를 해석한 것 외에도 동시에 語義, 句讀, 讀音, 語法, 篇章의 構成, 단락의 大義 및 校勘과 解釋 音讀을 하였다. 이는 일종의 廣의적인 訓詁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訓詁 형식은 全元起가 <素問>에 注釋한데서 시작하여 <內經>과 관련된, 현재의 몇몇 저서들까지 줄곧 이어져 왔다. <內經>을 注釋한 著書는 古今을 통하여 매우 많아서 책마다 그 注釋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本 論文에서는 要점만 간추려서 全元起

楊上善 王冰 馬蒔 張介賓 등의 注釋 特徵과 成果를 분석하기로 하고 우선 첫 번째 과정으로 錢超塵의 <內經語言研究><sup>4)</sup>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번역하여 全元起와 楊上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內經>의 語義를 해석하고 <內經>의 잘못된 곳을 校勘한 것으로, 이 또한 訓詁의 주요 표현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앞으로 林億 段玉裁 朱駿聲 胡澍 俞樾 顧尚之 孫詒讓 등이 <內經>을 訓詁한 特徵과 成果를 重點적으로 연구하도록 한다.

## II. 研究 內容

注釋派란 廣義의 訓詁는 古書에 대한 注釋의 전부가 포함된다. 가령 <毛詩訓詁傳>은 가장 권위 있는 訓詁書로, 다만 語義를 해석하는데 국한한 것이 아니라 社會생활 典章 制度 등등까지도 섭렵하였다. 따라서 <內經>의 注釋도 마찬가지로 訓詁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다.

### 1. 全元起的 <素問調解>

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4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47

3) 楊上善(6~7世紀); 隋唐時代의 醫學家이다. 戶籍과 本官이 未詳이다. 大業中(605~616年)에 太醫侍御를 지냈으며 名望이 높았다. <黃帝內經太素>30卷을 지었는데, 이는 現存하는 <內經>註解로서 가장 이른 것으로 後世의 <內經>研究에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 그러나 切脈·診斷 方面에 있어서 後世의 일부 醫家들에게 歪曲되고 敷衍·變化되어 理致에 맞지 않게 된 太素脈은 楊氏가 論한 脈診의 原義를 喪失하여 좋지 않은 影響을 미쳤다.

4) 錢超塵, 內經語言研究, 서울, 一中社, 1992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內經》의 연구에 있어서 全元起를 이 분야의 학자로 꼽지 않을 수 없다. 《隨書·經籍志》의 기록에 의하면 “黃帝素問八卷 全元起注”라고 되어 있다. 살펴보면 越字는 形體가 비슷하여 誤書된 글자로 ‘起’라고 하는 것이 옳다. 《隨書經籍志》醫方類 第一條에도 “黃帝素問九卷 注 梁八卷”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素問》이라는 書名이 《隨書經籍志》에는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八卷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九卷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는 小注가 있고 다른 하나는 小注가 없다. 이는 모두 《隨書經籍志》에서 정밀하게 살피지 못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小注에 의하면 “梁八卷”과 “黃帝素問八卷”이라고 하여 卷數가 相合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두 가지 책으로 오해하기 쉽도록 되었을 것이다. 《舊唐書經籍志》에서 “黃帝素問八卷”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注釋한 사람의 姓名을 注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거기에서 지칭한 것도 全元起가 注釋한 《素問》八卷이다. 《新唐書·藝文志》에서는 “全元起注黃帝內經九卷”이라고 기록하였으며, 宋代 鄭樵 《通志·藝文略》에서 “黃帝素問九卷 全元起注”라고 기록하였는데, 살펴보면 “九卷”아래에 “梁八卷”이라고 注하지 않은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崇文總目輯釋》에서 “黃帝素問八卷 全元起注”라고 기록하였는데, 살펴보면 《崇文總目》은 宋代 王堯臣 등이 撰한 것으로 이미 망실하였고 清代 錢侗에 崇文總目輯釋五卷이 있다. 이상 諸書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全元起的 梁代의 사람으로 일찍이 《素問》八卷을 注釋하였다. 이는 우리들이 目錄上에서 얻을 수 있는, 全元起에 관한 산재된 자료이다.

全元起的 事迹에 대해 《南史》제59卷<王僧孺傳>에 실려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僧孺工屬文 善楷隸 多識古事 侍郎全元起欲注《素問》 訪以砭石 僧孺答曰 古人當以石爲鍼 必不用鐵 說文有此砭字 許慎云 以石刺病也 《東山經》 高氏之山 多鍼石 郭璞云 可以爲砭石 《春秋》 美災不如惡石 服子慎云 石 砭石也 季世無復佳石 故以鐵代之耳

《南史》以後에 林億이 《素問序》에서 “西漢

倉公傳其舊學 東漢仲景撰其遺論 晉皇甫謐刺而爲《甲乙》 及隋楊上善撰而爲《太素》 時則有全元起者 始爲之《訓解》 闕第七一通”이라 하였다. 이 문장으로 보면 林億이 全元起的 隋代 楊上善과 同時代 사람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明代 徐春甫의 《古今醫統大全》卷一에 “全元起以醫鳴隋 其實不在巢楊之下 一時縉紳慕之如神 患者仰之 得則生 舍則死 其醫悉祖《內經》 所著《內經訓解》行世”라 하였고, 清代 陳夢雷 등이 지은 《醫部全錄》卷506에서는 《古今醫統》의 내용을 전부 인용하였다. 살펴보면 古今醫統에서 全元起的 隋代의 사람으로 칭하여 林億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였는데, 王僧孺傳이 가장 믿을 만 하다. 王僧孺(BC465년~522년)에 대해서 살펴보면 梁代 普通三年에 사망하였고, 全元起 또한 일찍이 그에게 訓詁에 대해서 가르침을 請하였으므로, 全元起的 반드시 齊梁間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는 《隨書經籍志》에 기재된 “《素問》…… 梁八卷 …… 全元起注”라는 내용과도 相合한다. 宋代 林億과 明代 徐春甫가 全氏가 隋代 사람이라고 칭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全元起的 지은 《素問訓解》는 《古今醫統》에 가장 먼저 보인다. 《古今醫統》에서는 실제로 林億의 序의 “時則有全元起者 始爲之訓解”에서 인용하였는데, 실제로 여기서의 “訓解”는 動詞로 볼 수도 있고 書名으로 볼 수도 있다. 徐春甫가 全氏가 《素問訓解》를 지었다고 칭한 이후에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부르게 되었다.

상술한 설명과 林億의 《素問》新校正에서 인용한 全元起에 대한 말에 근거하면 《素問訓解》가 北宋時代에는 오히려 完全無缺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通志·藝文略》의 기록에 의하면 《素問訓解》가 南宋에도 존재하였으니, 대략 宋末明初에 亡失되었음을 알 수 있다. 亡失된 중요한 原因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素問》王冰注本을 주로 보았기 때문에 全氏의 注는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內經》의 學術發展史에 있어서 큰 손실임이 틀림없다.

《素問訓解》가 亡失된 것이 큰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素問訓解》에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주로 세 가지이다.

첫째 《素問訓解》는 魏晉以來 《素問》 본래의 면모를 보존하고 있다. 皇甫謐은 《內經》十八卷中에 “亦有所亡失”이라고 하였다. 皇氏가 비록 亡失한 卷數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梁代에 《素問》은 단지 八卷만 존재하였으므로 一卷이 亡失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全元起가 八卷만을 注하였으며 王冰本 注에 第七卷 “七大論”은 《訓解》중에 전혀 없으니 《素問》이 亡失된 것은 第七卷임이 증명된다. 후에 王冰이 先師에게서 古人이 亡失한 第七卷을 얻었다고 말하고, 이에 《素問》에 補入하였다. 실제로 이 “七大論”은 비록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필경 원래에 있던 《素問》의 일부분이 아니다. 만약 《素問訓解》 원래의 卷數 次例 篇名을 보고자 한다면 이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

다. 《素問訓解》가 아직 존재하던 때에 林億이 일찍이 그것으로 王冰本 《素問》을 校正하고 王冰本의 篇目 段落과 서로 대조하고 설명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林億이 <上古天真論> 標題 아래에 매우 중요한 한 단락의 글이 있다.

按全元起注本在第九卷 王氏重次篇第 移冠篇首 今注逐篇必具全元起本之卷第者 欲存《素問》舊題目 見今之篇次皆王氏之所移也(人民衛生出版社《素問》橫排本1項)

文獻學 考證學과 訓古學 上으로 고찰하면 全元起本의 원래 卷次 篇次 題目名稱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아래에 王冰本과 全元起本을 對照하였다.

王冰의 序文에 의하면 王冰本의 篇名이 全氏本과 다른 것은 모두 王冰이 보충하고 고친 것이다.

全元起本과 王冰本의 卷次, 篇名의 비교

全元起注本		王冰注本		備考
卷次	篇名	篇名	卷次	
卷一 (總七篇)	平人氣象論	平人氣象論第十八	卷五	全氏本 卷六脈要篇에 重出 全氏本 卷二에 重出, 眞邪論으로 改名 王冰이 全氏本 宣明五氣篇을 두 篇으로 나누어 血氣形志篇이 증가 全氏本 卷六에 重出, 林億注에 보임
	決死生	三部九候論第二十	卷六	
	藏氣法時論	藏氣法時論第二十二	卷七	
	經合論	離合眞邪論第二十七	卷八	
	宣明五氣篇	宣明五氣篇第二十三	卷七	
	調經論	血氣形志篇第二十四	卷七	
	四時刺逆從論	調經論六十二	卷十七	
		四時刺逆從論六十四	卷十八	
卷二 (十一篇)	移精變氣論	移精變氣論第十三	卷四	全氏本 卷一에 經合이라 이름하였고, 여기에 眞邪論이라는 명칭이 重出 全氏本 皮部論 뒤에 經絡論이 있다. 王冰本은 全氏本 皮部論에서 나눔 “灸寒熱之法”이하는 全氏本 刺齊論 끝에 있음
	玉版要論篇	玉版要論篇第十五	卷五	
	診要經終論	診要經終論第十六	卷四	
	八正神明論	八正神明論第二十六	卷八	
	眞邪論	離合眞邪論第二十七	卷八	
	皮部論	皮部論第五十六	卷十五	
		經絡論第五十七		
	氣穴論	氣穴論第五十八	卷十五	
	氣府論	氣府論第五十九	卷十五	
	骨空論	骨空論第六十	卷十六	
	繆刺論	繆刺論第六十三	卷十八	
	標本傳病論	標本傳病論第六十五	卷十八	

<p>卷三 (總六篇)</p>	<p>陰陽離合論 十二藏相使 六節藏象論 陽明脈解 五藏舉痛 長刺節論</p>	<p>陰陽離合論第六 靈蘭秘典論第八 六節藏象論第九 陽明脈解第三十九 五藏舉痛第三十九 長刺節論第五十五</p>	<p>卷二 卷三 卷三 卷八 卷十一 卷十四</p>	<p>林億은 王冰本の “岐伯對曰”부터 “可得聞乎”까지 王冰이 補充한 것으로 의심</p>
<p>卷四 (總八篇)</p>	<p>生氣通天論 金匱真言論 陰陽別論 經脈別論 通評虛實論 太陰陽明論 逆調論 痿論</p>	<p>生氣通天論第三 金匱真言論第四 陰陽別論第七 經脈別論第二十一 通評虛實論第二十八 太陰陽明論第二十九 逆調論第三十四 痿論第四十四</p>	<p>卷一 卷一 卷二 卷七 卷八 卷八 卷九 卷十二</p>	
<p>卷五 (總十篇)</p>	<p>五藏別論 湯液醪醴論 熱論 刺熱論 評熱病論 瘧論 腹中論 厥論 病能論 奇病論</p>	<p>五藏別論第十一 湯液醪醴論第十四 熱論第三十一 刺熱論第三十二 評熱病論第三十三 瘧論第三十五 腹中論第四十 厥論第四十五 病能論第四十六 奇病論第四十七</p>	<p>卷三 卷四 卷五 卷九 卷九 卷十 卷十一 卷十二 卷十三 卷十三</p>	
<p>卷六 (總九篇)</p>	<p>脈要論 玉機真藏論 刺癰論 刺腰痛論 刺齊論 刺禁論 刺志論 鍼解 四時刺逆從論</p>	<p>脈要精微論第十七 玉機真藏論第十九 刺癰論第三十六 刺腰痛論第四十一 刺齊論第五十一 刺要論第五十 寶命全形論第二十五 刺志論第五十三 鍼解篇第五十四 四時刺逆從論第六十四</p>	<p>卷五 卷六 卷十 卷十一 卷十四 卷十四 卷八 卷十四 卷十四 卷十八</p>	<p>全氏本 脈要篇 끝에 藏氣法時論이 重出  刺齊論 刺要論이 全氏本에서는 刺齊論으로만 이룸하고 王冰本에는 刺要論으로 나눔 寶命全形論은 王冰이 命名함.  이 篇은 全氏本 卷六 및 卷一에 나오고 이곳에서 重出(林億의 注에  자세히 함)</p>
<p>卷七</p>	<p>全氏本에는 없다</p>	<p>王冰素問序에 “時于郭子齊堂 受得先師張公秘本”이라 하였는데, 이 秘本중에 이 유실된 지 오래된 卷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즉 王冰이 補入한 七大論이다.</p>	<p>林億이 이 七大論에 대해서 “非素問第七”이라 하였는데, 考證이 매우 精밀하므로 그 說을 따를 만 하다.</p>	

全元起注本		王冰注本		備考
卷次	篇名	篇名	卷次	
卷八 (總九篇)	痺論	痺論第四十三	卷十二	全氏本 四時病類論 끝에 著至教論이 있다. 林億注: 全氏本の 第八卷에 있다. 示從容論은 王冰이 命名한 것이다. 疏五過論은 王冰이 命名한 것이다.  解精微論은 王冰이 命名한 것이다.
	水熱穴論	水熱穴論第六十一	卷十六	
	四時病類論	四時病類論第七十五	卷二十三	
	方盛衰論	方盛衰論第八十	卷二十四	
	從容別白黑	示從容論第七十六	卷二十三	
	論過失	疏五過論第七十七	卷二十三	
	方論得失明著	徵四失論第七十八	卷二十三	
	陰陽類論	陰陽類論第七十九	卷二十四	
	方解論	解精微論第八十一	卷二十四	
卷九 (總九篇)	上古天眞論	上古天眞論第一	卷一	
	四氣調神大論	四氣調神大論第二	卷一	
	陰陽應象大論	陰陽應象大論第五	卷二	
	五藏生成篇	五藏生成篇第十	卷三	
	咳論	咳論第三十九	卷十	
	風論	風論第四十三	卷十二	
	大奇論	大奇論第四十八	卷十三	
	脈解	脈解第四十九	卷十三	
	異法方宜論	異法方宜論第十二	卷四	
總八卷	總六十九篇	總七十二篇		

林億이 《素問》에서 每篇 아래에 제시한 것에 근거하여 日本의 丹波元簡이 일찍이 卷, 篇마다 王冰本과 全元起本 사이의 관계를 대조 고증하여 《全元起卷目》考를 지었는데, 그 내용이 丹波元簡의 《素問識》에 처음 보이며, 그의 아들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卷三 醫經類三에서 인용한 곳에서 다시 보이며, 후에 日本 岡西爲人の 《宋以前醫籍考》와 龍伯堅의 《黃帝內經概論》은 모두 丹波元簡이 고찰한 것에 근거하고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다. 丹波元簡은 漢學에 매우 심오한 경지에 있고 考證 訓詁에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讀書에 得間하고 發明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丹波元簡의 《全元起卷目》考에서 <著至教論> 아래 林億의 注에 “按全元起本在<四時病類論>末”이란 말이 있는데 이를 더 考證하지 않아서, 全氏의 이 篇의 文章에 대해서도 《全元起卷目》考에서는 빠져 있다. 林億의 注에 의하면 全氏本에 <四時病類論>의 文章이 있었음을 긍정할 수 있으나, <著至教論>이 원래 全氏本에 있었는지는 또한 설명되지 않는다. 龍伯堅은 《內經概論》에서 <四時病類

論>이 원래 독립된 一篇으로 그 포함된 내용이 두 가지라고 하였다. 하나는 <著至教論>의 앞부분 한 단락으로, 즉 시작하는 한 구절 “黃帝坐明堂 召雷公而問之曰”이며, 또 하나는 <陰陽類論>의 뒤 단락으로, 즉 “雷公復問”에서 “二月獨至 期在盛水”까지이다.(人民衛生出版社 素問 橫排本 第566項에서 567項까지) 龍氏가 논한 것은 林億의 注에 근거한 것인데, <陰陽類論>의 “雷公復問” 句節 아래 林億이 “自雷公之下 別爲一篇 名四時病類”라고 지적하였다. 林億의 注에 근거하여 고찰하면 <著至教論>은 기본적으로 곧 <四時病類論>으로 王冰이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丹波元簡은 《全元起卷目》考 卷八에서 八篇의 文章은 열거하였으나 <四時病類論>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총 六十八篇이라고 하였고, 上記한 表에서는 <四時病類論>까지 포함하였으므로 총 八卷 六十九篇이 되었다.

이 표는 비록 간단하지만 그것은 素問의 篇수의 연변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全氏本과 王氏本을 비교하는 중에 王冰本이

《素問》의 원래 자료를 보전하는데 있어서 비록王氏가 增損한 것이 있으나, 林億이 全元起本 및 《太素》 《甲乙》에 근거한 校勘을 통해서王氏가 損益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비록 全元起本을 다시 볼 수 없으나 林億이 인용한 글 중에 全氏本이 校勘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例1

帝曰 決死生奈何 岐伯曰 形盛脈細 少氣不足以息者危 形瘦脈大 胸中多氣者死(《三部九候論》) 林億《新校正》云 按全元起注本及《甲乙經》《脈經》危作死

살펴보면 “死”字로 하는 것이 옳다. 黃帝가 死生을 물었지 安危를 물은 것이 아니므로 대답하는 말이 “死”가 마땅하지 “危”가 마땅하지 않다.

例2

其病令人善言 默默然不慧 刺之三疔(《刺腰痛論》) 林億《新校正》 按經運善言默默然不慧 詳善言與默默 二病難相兼 全元起本無善字 于義爲允

例3

膝下三寸分間灸之 足陽明跗上動脈灸之(《骨空論》) 林億《新校正》 按《甲乙經》及全元起本 “足陽明”下有“灸之”二字 并跗上動脈是二穴 今王氏去“灸之”二字 則是一穴 今于注中却存灸之二字 以闕疑耳

살펴보면 이상의 林億의 校注는 매우 정밀하다. 例2에서는 訓古學의 관점으로도 ‘善’字가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마땅히 全氏本을 따라야 한다. 例3에서는 “足陽明”三字 아래에 마땅히 “灸之”二字가 있어야 한다. 全氏本 및 《太素》에 “灸之”二字가 있을 뿐만 아니라 王冰도 注에서 “可灸足陽明脈三壯”이라 하였으니 全元起本이 校勘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어떤 서로 다른 글자들은 訓古學 音韻學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全元起本이 매우 좋은 곳이 확실히 있다.

셋째 全元起가 지은 《素問訓解》는 醫學 理致를 잘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語義에 대한 해석을 융합하여 전체의 내용을 적절히 개괄하였다. 이는 全氏 注釋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生氣通天論>에 “風客淫氣 精乃亡 邪傷肝也”라 하였는데, 全元起的 注에 “淫氣者 陰陽之亂氣 因氣相亂而風客之則傷精 精傷則邪入于肝也”라 하였다. 全氏의 注에서 全氏가 “淫”字를 “亂”으로 해석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적합한 것이다. 또한 風邪가 밖으로부터 침입하여 陰陽之氣를 어지럽게 하므로 陰陽之氣가 어지럽게 되면 곧 사람의 精氣를 傷하고, 사람의 精氣가 傷하면 正氣가 堅固하지 않아서 風邪가 곧 肝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하였다.

全元起는 楊上善의 《太素》, 王冰의 《素問注》에 모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陰陽類論>에 “夏三月之病 至陰不過十日 陰陽交 期在濼水”라 하였는데, 무엇을 “濼水”라고 하는지에 대해 全元起의 注에는 “濼水者 七月也 建申 水生于申 陰陽逆也”라 하였고, 楊上善의 《太素》注에는 “濼 廉檢反 水靜也 七月 水生時也”라 하였다. 七月之水를 ‘濼水’라 하므로 ‘濼水’는 곧 七月에 비유하였으니 全氏가 “濼水者 七月也”라 하였고, 楊上善도 “濼水”를 七月이라고 訓하였으니 全氏의 說에 근본한 것이다.

全氏의 注가 王冰에 대한 영향은 더욱 크다. 王冰의 《素問序》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素問》의 舊本에 여러 군데 결점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가령 “或一篇重出 而別立篇題 或兩論并吞 而都爲一目” 등등이 全氏本에 확실히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藏氣法時論은 全氏本 第一卷에 있는데 第六卷 <脈要篇>의 末尾에도 거듭 나타난다. <離合眞邪論>은 全氏本의 第一卷이 있는데 第二卷에서도 거듭나오므로 《眞邪論》으로 改名하였다. <四時刺逆從論>은 臟腑經絡之氣가 四時와 밀접하게 상응하므로 鍼刺治療에서도 四時氣候에 주의하

여야 한다고 주로 논술하였고 아울러 諷刺의 위험을 지적하였다. <四時刺逆從論>에서 논술한 내용은 매우 집중되어 나뉠 수 없는데 全元起 本에서는 도리어 이 篇의 문장을 두 部分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卷一에 두고 한 部分은 卷六에 두었다. <四時刺逆從論> 아래의 林億의 注에 의하면 “按厥陰有餘之筋急目痛 全元起本在第六卷 春氣在經脈之篇末 全元起本在一卷”이라 하였다. 위의 王冰本과 全氏本の 比較표를 보고 다시 王冰의 序를 다시 읽어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王冰이 비록 全元起 本의 결점을 비판하였으나 그의 注釋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하였다. 王冰의 注가 사실은 全氏로부터 나온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刺法》曰 無損不足 益有餘 以成其疹 然後調之 <奇病論>

“然後調之” 아래의 林億의 注에 “按《甲乙經》及《太素》無此四字 按全元起注云 所謂不治者 其身九月而瘡 身重不得爲治 須十月滿 生後復如常也 然後調之 則此四字本全元起注文 誤書于此 當刪去之”라 하였다.

全元起的 注를 正文에 混入한 것이 《素問》에서 이곳 하나 뿐이 아니다. <奇病論>에 “身熱如炭 頸膺如格 人迎躁盛 喘息氣逆 此有餘也”라 하였는데, “此有餘也”의 뒤에 林億이 《素問》을 校勘할 때에 아래에 “是陽氣太盛于外 陰氣不足 故有餘也”라는 한 단락의 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太素》《甲乙經》에 모두 이 十五字가 없음을 조사하고 全元起 本을 다시 고찰하고는 王冰이 全元起的 注文에서 인용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後人들이 王冰本을 베낄 때 注文을 正文에 잘못 베껴 넣은 것이다. 이는 全氏의 注가 醫理가 經文과 서로 완전히 관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言語의 品格도 經文과 서로 吻合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林億의 《新校正》에서 “詳此十五字 舊作文寫 按甲乙經 太素 并無此文 再詳乃時全元起注 後人誤書于此 今作注書”라 하였다. 林億의 校勘을 통하여 이 十五字가 이미 正文에서 나와서 注文으로 고쳐졌다.

王冰은 全元起的 注를 인용할 때에 때로는 “全

注”二字를 더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腦逆故令頭痛 齒亦痛 病名曰厥逆 帝曰善(《素問·奇病論》)  
王冰注: 全注 人先生于腦 緣有腦則有骨髓 齒者骨之本也

그러나 인용한 것을 밝힌 곳이 적고 밝히지 않은 곳이 많다. 따라서 林億은 王冰注 마다 뒤에 어떤 注가 全氏注로부터 나온 것임을 제시하였다.

鍼解篇: “人齒面目應星”  
王冰注: “人面應七星者 所謂面有七孔應之也”  
林億新校正: “詳此注乃全元起之辭也”

결론적으로 全元起的 注 및 그가 의거한 <內經>의 八卷本은 좋은 곳이 많아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南史·王僧孺傳>에서 지적한 것처럼 全元起가 그에게 ‘砭’字의 의미를 가르쳐달라고 청하였을 때, 王僧孺가 그에게 옛날에는 鐵이 없었으므로 尖石을 사용하여 病을 治療하였는데 山海經의 기록에 의하면 高氏의 山에 좋은 尖石이 있었는데 뒤에 좋은 砭石이 없어지고 鐵이 있게 되면서 鐵製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素問注》에서 全元起가 王僧孺의 말을 인용한 것까지 찾는다면 매우 적으나 몇 가지를 증명할 수 있다. 첫째 全元起는 확실히 齊梁 시대의 사람이므로 王僧孺傳에서 그에 대해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도 王僧孺의 말을 注中에 적어서 그 두 사람이 서로 보충하고 증명한 것이다. 둘째 全元起는 글자의 해석을 매우 중시 여겨서 한 글자를 해석하기 위하여 일찍이 박학다식한 王僧孺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러한 소소한 학술적 열망을 갖고 세세하게 《素問》 王冰注와 林億新校正을 살펴보면, 《素問·寶命全形論》에 “制砭石小隊”句下에 林億이 중요한 한 단락의 자료를 인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新校正云 按全元起云 砭石者 是古外治之法 有三名 一鍼石 二砭石 三鐵石 其實一也 古來未能鑄鐵 故用石爲鍼 故名之鍼石 言工必砥礪鋒利 制其小大之形 與病相當 黃帝造九鍼以代鐵石(《素問》第161項注④)

全氏が 말한 “古來未能鑄鐵 故用石爲鍼”과 “僞儒答曰 故人當以石爲鍼 必不用鐵”(〈王僞儒傳〉)을 살펴보면, 의미상 완전히 일치하고 語句 또한 서로 비슷하다. 따라서 王僞儒가 全氏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었고 그가 《素問訓解》에 응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全元起가 齊梁 시대의 사람이라고 고찰하는 것만이 또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다.

全元起的 注도 옳지 않은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皮部論：“故皮者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  
 新校正：“按甲乙經不與作不愈 全元起本作不與 元起云 氣不與經脈和調 則氣傷于外 邪流入于內 必生大病也”(291項注②)

全元起가 ‘與’字 뒤에 ‘經脈和調’의 四字를 늘렸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임의대로 글자를 늘려서 그 說을 원할하게 하는 注釋方法을 “增字解經”이라 불렀는데, 당연히 이러한 방법은 취할 수 없는 것이다. ‘與’字는 여기에서 어조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治療한다”로 해석해야 한다. 《甲乙經》에는 ‘與’字가 바로 ‘愈’로 되어 있고, 《太素》에는 비록 ‘與’로 되어 있으나 楊上善도 “療”로 해석하였으니 “在淺不療 遂生大病 與 療也”라고 하였다.(《太素》卷九<經脈皮膚> 人民衛生出版社《太素》第141項)

## 2. 楊上善의 《太素》

楊上善은 醫學 哲學 면에 모두 공헌이 있는 학자로서, 그의 철학 서적은 이미 모두 散佚되었고 太素만이 기본적으로 보존이 양호하다. 楊上善은 醫學思想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도 매우 많지 않기 때문에 本節에서는 비교적 많은 편을 가지고 다각도로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經學 史學 文學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반드시 동시에 그 注釋家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가령 詩經을 논할 때 반드시 漢初의 毛亨注를 인용하고, 周禮 儀禮 禮記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鄭玄의

“三禮”注에 의하고, 史記를 읽을 때 당연히 三家의 注, 즉 裴駰集解 司馬貞索隱 張守節正義에 의하고, 漢書를 읽을 때에는 顏師古의 注를 배 놓을 수가 없으며, 昭明文選을 松腹할 때에는 지금까지도 李善의 注를 최고로 친다. 결론적으로 박학다식한 注釋家 한 사람이 항상 평생의 精力으로 하나의 탁월한 저작을 注釋하여 心神性命의 大事를 이루어 낸다. 따라서 그의 注釋은 이미 原文과 융화되어 일체가 된다. 原文이 注釋에 의하여 昭詳한 뜻이 밝혀지며 注釋家는 原著에 의하여 千古를 살게 된다. 역사상으로 注釋學이 수 천년을 거치도록 쇠퇴하지 않은 것은 또한 이런 이유이다.

醫學注釋 중에 漢唐 注釋家와 비견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학자가 있다. 이러한 학자에는 곧 楊上善이 있다. 그의 著作과 注釋을 연구 분석해 보면, 醫學에서의 그의 공헌이 “三禮”를 注釋한 漢代의 鄭玄, 文選을 注釋한 唐代의 李善과 비교할 수 있다. 楊上善의 醫書 注釋은 醫學史上 많은 공헌을 하였다.

### (1) 楊上善의 時代와 著作

楊上善은 古代의 많은 위대한 醫學家와 마찬가지로 正史 중에는 傳이 없어서, 後人들이 그의 學術에 대해 연구하는데 불편하다. 楊上善의 時代에 대해서 대표적인 의견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楊上善이 隋代의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北宋의 學者 林億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에서 “隋楊上善集而爲太素”라 하였다. 明代 李濂(서기 1488-1566)의 《醫史》와 徐春甫의 《醫統》에서 楊上善은 隋 大業 때의 太醫侍御로서 治病에 神驗이 있었다고 하였다. 둘째로 楊上善이 唐代의 사람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유는 이하의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최근에 楊守敬이 日本訪書志에서 “《太素》注의 ‘丙’字가 모두 ‘景’字로 되어 있는데 이는 唐太祖의 諱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唐代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太素》의 앞에 “通直郎守太子文學臣楊上善奉勅撰注”라고 題하여 있는데 《唐六典》을 살펴보면 太子文學의 官職이 없다가 唐 高宗 顯慶(서기 656-661)에 이르러 비로소 이 官職이 생겼으므로 唐 顯慶 이후



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肖延平 《太素》校記에 또한 하나의 증거를 들었는데 《太素》注를 살펴보면 老子的 말을 인용할 때 모두 玄元皇帝라고 칭하였다. 新舊唐書를 살펴보면 老子를 玄元皇帝로 推奉한 것이 唐 高宗 乾封元年(서기 666년) 2월이므로 楊上善은 唐代의 사람임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상의 두 가지 說 중에서 마땅히 後者が 실제 적이며 합리적이다. 이외에도 두 가지 이유를 보충하여 그가 당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첫째는 楊上善의 著作이 《舊唐書經籍志》에는 보이지만 《隋書經籍志》에는 보이지 않는다. 《舊唐書經籍志》에 楊上善의 著作과 注釋은 76卷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중에 道家類의 著作은 33권으로 다음과 같다.

《老子》 二卷 楊上善注(《新唐書藝文志》에는 楊上善注老子道德經二卷이라고 되어 있다.)

《老子道德經指略論》 二卷 楊上善撰(《新唐書》에는 老子指略論二卷이라 하였고, 注에는 太子文學이라 하였다.)

《略論》 三卷 楊上善撰(《新唐書藝文志》와 같다.)

《莊子》 十卷 楊上善撰(《新唐書藝文志》에는 “撰”이 “注”로 되어 있다.)

《六趣論》 六卷 楊上善撰(《新唐書藝文志》와 같다.)

《三教詮衡》 十卷 楊上善撰(《新唐書藝文志》와 같다.)

醫家類의 著書는 四十三卷으로 아래와 같다.

《黃帝內經太素》 三十卷 楊上善撰(《新唐書》와 같다.)

《黃帝內經明堂類成》 十三卷 楊上善撰(《新唐書》와 같다.)

이 외에도 道家類에 《太上玄元皇帝道德經》 二卷이 있는데 注에 “楊上器撰”이라고 되어 있다. 살펴보면 대 ‘器’는 ‘善’과 모양이 비슷하여 글을 쓸 때 쉽게 혼동하므로 “楊上器”는 “楊上善”의 誤字인 듯하다.

《舊唐書經籍志》에 수록되어 있는 책은 모두 당시 著者が 직접 보고 또한 그 당시에 존재하던 서적들이므로 그 당시의 사람이 저술한 것이거나 先賢이 지은 것을 포함한다. 《隋書經籍志》에서 쓴 예도 이와 같다. 한편 《隋書》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이는 마땅히 우연히 실수로 기재하지 못한 原因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楊上善은 책을 저술할 정도의 大學者이고 벼슬이 太子文學에 이르렀는데 《隋書經籍志》에 그 책이 기록에 빠져있다는 것은 이하해가 가지 않는다. 수궁이 가고 이해할 만한 해석은 楊上善이 唐代 사람이 隋代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楊上善이 隋代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上述한 책을 撰注한 시기는 이미 唐代에 들어가므로 《舊唐書經籍志》에는 나타나고 《隋書經籍志》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 唐代學者和 유명한 道家인 杜光庭은 楊上善을 唐代의 사람으로 칭하였다. 杜光庭은 字가 賓至(서기 850-933년)이고, 唐의 處州 縉雲(지금의 浙江省 縉雲)의 사람이다. 一說에는 唐末 京兆 杜陵人이라고 한다. 懿宗(이름은 李漼, 서기 860-874년 동안 재위함)때에 進士에 응시하였다가 급제하지 못하여 분발하여 天台山에서 道學을 하였다. 僖宗(이름은 李儂<sup>5)</sup>, 서기 874-888년 동안 재위함)때에 麟德展文章應制 및 內庭供奉을 지냈다. 후에 難을 피하여 蜀으로 들어가서 前蜀의 王衍을 위해 諫議大夫 및 戶部侍郎을 지냈다. 후에 青城山의 白雲溪에 隱居하고 號를 東瀛<sup>6)</sup>子라고 지었다. 詩文에 능하였고 著述이 매우 많았으며 특히 道書가 많았다. 그가 지은 傳奇 《虬髯客傳》은 널리 전파되어 중국 小說의 발전역사상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奇異記》 《廣成集》등의 책을 지었다. 魯迅의 《中國小說史略-唐之傳奇文(下)》에 “杜光庭之虬髯客傳(《廣記》一百九十三에 보인다.) 流傳乃獨廣 光庭爲蜀道士 事王衍 多所著述”이라 하였다. 杜氏의 《道德經廣聖義》에서 “太子司議郎楊上善 高宗時人 作《道德經注真言》二十

5) 儂: 충명할 현

6) 瀛: 바다 영

卷"이라 하였다. 杜氏는 唐末의 사람으로 楊上善과 얼마 멀지 않고, 道書를 즐겼는데 楊氏가 지은 道書가 매우 많아서 杜氏가 연구하는 바가 되었으므로 楊氏를 일컬어 高宗 때의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믿을 만하고 楊守敬 肖延平과 같은 學者의 考證에도 부합된다.

살펴보건대 高宗 李治가 서기 650년-683년 동안 재위하였는데 과연 楊氏가 高宗 時期에 별세하였다면 醫家들이 또한 흔히 長壽하므로 그가 태어난 년도는 隋代라는 것도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楊上善의 시대에 대해서 그가 隋代에 태어나서 高宗 때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믿을 만하며 그 生년에 근거하면 隋代의 사람이라고 칭하여도 무방하고 그 沒년에 근거하면 唐代의 사람이 된다. 그가 지은 책은 正史의 기록에 의하면 모두 76卷인데 注釋보다 自撰이 많다. 杜氏가 말한 楊氏의 道德集注眞言 二十卷은 正史에 기록이 누락되었는데 만약 계산해 넣으면 모두 96卷을 撰注한 것이다.

楊上善의 이러한 著作은 《太素》가 기본적으로 완전하고 《黃帝內經明堂類成》이 一卷이 殘存하고 序 一篇이 남아 있는 것 외에는 그 나머지는 모두 유실되었다. 이는 실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太素》는 宋史 중에 다만 三卷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明堂》과 그 기타 각 서적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 宋史는 元代에서 지어졌다. 《太素》는 元代 初期에 이미 三卷만이 남아 있었고 후에 이 三卷도 이미 망실되었다.

이 책은 日本에서 한동안 전래되어 오다가 이후에 다시 중단되었다. 따라서 《太素》는 목록에서만 볼 수 있고 사람들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19세기초에 일본학자 궁궐의 仁和寺에서 《太素》 唐人의 抄本을 발견하였는데 北宋 林億의 新校正과 대조하여 보니 매우 많은 곳이 서로 들어맞았는데, 이는 진정한 楊氏 注의 《太素》로서 “天不傷斯文”이라 할 수 있으며 寶典이 다시 드러났으니 學界에서는 경사로 칭하였다. 日本學者 丹波元胤(서기 1789-1827)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按是書 嘉祐中林億等校《素問》時 完帙猶存 自

後世久失傳 近日西京太醫博士福井榕亭(需)得零本一通 卷爲軸子 題曰《黃帝內經太素》二十七卷 通直郎守太子文學臣楊上善奉敕撰注 凡五篇(按: 福井榕亭이 얻은 殘本이 모두 五篇임을 말한다.) 曰《七邪》 曰《十二邪》 曰《邪客》 曰《邪中》 曰《邪傳》 卷末題目下有《邪論》二字 仁安三年 丹波賴基傳鈔憲基家本者(按: 仁安三年은 서기 1168년으로 中國 南宋 乾道四年이다.) 蓋六百五十餘年前物 而人間希有之寶牘也 林億等 素問序曰 及隋楊上善撰而爲太素 今觀其體例 取素問靈樞之文 錯綜以致注解者 後世有二經分類之書 上善實爲之唱首

清末에 중국 학자가 日本에서 舊 《太素》의 重抄本을 구입하였는데 七卷이 빠져 二十三卷이 있었다. 후에 肖延平이 또 楊氏本에 대해서 精校를 하였다. 肖延平은 字가 北承이고 黃陂 지방 사람이다. 그의 姻弟(처남 매부 사이)인 周貞亮의 跋에는 “北承究心醫書 涉覽極博 內經不去手者 蓋數十年 其校此書也 據甲乙經 靈樞 素問 以訂經文之異同 據傷寒論 巢氏病源論 千金方 外臺秘要 日本醫心方 等 以證注義之得失 體例與素問王注 新校正相近 其穿穴經論 微契聖心 雖未知于仲景諸家奚若 而用漢學治經義之法 于宋賢校醫書中 一義必析其微 一文必求其確 蓋自林億高保衡以還 數百年無此詣精之作 可斷言也”라 하였다.

本文에서 논한 楊上善의 注는 肖延平의 太素校訂本에 의한 것이다.

## (2) 楊上善의 世界觀

중요한 醫學家와 醫經注釋家에 대해서 마땅히 그의 세계관에 대해 분석 연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그들의 저작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楊上善의 세계관을 가장 잘 반영하는 著作은 그가 지은 《三教詮衡》 《六趣論》 《老子道德指略論》 및 《莊子》注 등이다. 애석하게도 이런 著作은 일찍이 失傳되었다. 그러나 그의 《太素》注 중에도 적지 않게 楊上善의 世界觀을 반영하는 진귀한 자료가 보전되어 있다.

道家思想은 楊上善의 세계관중에서 중요한 지위

를 점유하고 있으나 그의 세계관의 핵심은 아니다.

唐初 李淵 李世民 李治의 세 王이 모두 道敎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李治 乾封元年(서기66년)에 老子를 玄元皇帝로 봉하여 道敎思想이 한때를 風靡하였다. 이러한 사상도 <太素>注에 표현되어 있다. 가령 <太素·順養注>중에 “玄元皇帝”을 세 번 인용하였고, <陰陽>篇注에 또한 “玄元皇帝”을 인용하였다. 특히 原文이 養生의 내용에 관한 것일 때에는 楊上善은 반드시 莊子 老子的 저작을 인용하여 더욱 뜻을 발휘하였다. 예를 들어 <太素>卷六 <藏府之一>에서 “是故五臟 主藏精者也 不可傷 傷則守失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矣”라 하였는데 楊上善은 이 단락의 밑에 道家의 이론을 대단히 많이 闡述하였다.

“故不死之道者 養五神也 人皆怵惕思慮 則以傷神 悲哀動中 日亡魂性 喜樂無極 神魂散揚 愁憂不解 志意怵亂 盛怒無止 失志多忘 恐懼驚神 傷精瘳骨 □以千端之禍 害此一生 終以萬品欲情 澆亂眞性 仍服金石貴寶 摧斯易生之軀 多求神仙芳草 日役百年之命 昔彭聃以道怡性 壽命遐長 秦武采藥求仙 早升霞氣 故廣成子語黃帝曰 來 吾語汝 至道無視無聽 抱神以精 形將自正也 必靜必清 無勞汝形 無搖汝精心 無所知 神將守形 可以長生 故我修身千二百歲 人皆盡死 而我獨存 得吾道者 上爲皇 下爲王 得吾道者 上見光 下爲土 是知安國安人之道 莫大怡神 亡神亡國之災 無出情欲 故岐伯以斯至道 上答黃軒 述千古之遺風 拯萬世之荼苦也(人民衛生出版社 太素第74項)

살펴보면 “來 吾語汝”로부터 “上見光 下爲土”까지 <莊子·在宥篇>에서 발췌한 인용문이다. 經文은 본래 莊子의 이 段落에서 말한 뜻과 서로 다르지만 楊上善은 오히려 많이 인용하고 이런 사상을 더욱 넓혀서 “安國安人”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老莊思想이 楊上善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楊上善이 佛敎가 醫學에 들어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太素>卷六

<藏府之一> 人民衛生出版社 第70項)

楊上善注: 雌雄兩神相搏 共成一形 先我身生 故謂之精也 卽前兩精相搏共成一形 一形之中 靈者謂之神者也 卽乃神之微也 問曰 謂之神者 未知于此精中始生 未知先有 今來 答曰 按此內經 但有神傷 神去 與此神生之言 是知來者 此曰始生也 及案釋敎 精合之時 有神氣之來託 則知先有 理不虛也 故孔丘不答 有知無知 量有所由 唯佛明言 是可依(<太素>卷六 <藏府之一> 人民衛生出版社 70~71項)

이 단락의 注釋 중에서 楊上善이 몇 가지 철학적 문제를 말하고 있다. 첫째 原文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은 <靈樞·本神篇>에 보인다. 이 두 구절은 대체로 사람의 생명이 남녀가 交媾하여 남녀가 서로의 精이 결합하여 形體를 이루고 形體를 이룬 후에 精神이 생겨남을 말한다. 또한 곧 精神은 “精”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한다. 歷代注釋家들이 이처럼 이해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가령 張介賓은 <類經>卷三 第九注에서 “兩精者 陰陽之精也 搏者 交結也 凡萬物生長之道 莫不陰陽交而後神明(張氏의 神明은 精神을 지적한다.)見 故人之生也 必合陰陽之氣 構父母之精 兩精相搏 形神乃成 所謂天地合氣 命之曰人也”라 하였다. 楊上善은 남녀의 정이 交媾하여 人體를 生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精神이 결합하여야 “精”이 생기며 兩精이 서로 結合해야만 人체를 이룬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雌雄兩神相搏 共成一形 (兩神)先我身生(이 구절의 主語는 兩神인데 위 구절을 이어서 생략한 것인데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主語를 보충하고 괄호를 사용하여 원문과 구별하였다.)故謂之精也” 이를 살펴보면 ‘神’이 ‘精’보다 먼저 생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前提에서 그는 人체를 형성하는 물질적 기초가 즉 “兩精相搏 共成一形”이라고 말한 것이다.

둘째 楊上善의 ‘神’에 대한 개념은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즉 “靈者謂之神也 乃身之微也”라 하였는데, 이는 ‘神’은 곧 ‘神靈’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생명 중에서 가장 미묘한 主體로서 ‘神靈’이 없으면 곧 生命이 없는 것이다.

셋째 神과 精을 서로 비교하면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 또한 어떤 것이 일차적

인가에 대해서 楊上善은 '神'이 '精'보다 먼저 생하고 '神'이 일차적이라고 하여 "問曰 謂之神者 未知于此精中始生 未知先有 今來 答曰 按此內經 但有神傷 神去 與此神生之言 是知來者 此曰始生也"라고 하였다.

넷째 東洋哲學의 歷史에서 '神'은 上帝를 대표적인 人格의 神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佛敎에서 말하는 부처라고 할 수 있다. 楊上善이 <內經>에서 말한 '神'은 人格의 神이 아니라 佛敎에서의 神을 말한다고 하였다. 佛敎에서는 사람의 生命은 輪廻하는데 輪廻하는 이치가 남녀가 交媾하는 때에 '神'이 '精'에 붙어서 사람을 이루므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神靈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그는 "及案釋敎 精合之時 有神氣之來託 則知先有 理不虛也"라고 해석하였다. 所謂 "先有"란 '神靈'이 萬物보다 먼저 "先有"하는 것인데 楊氏는 단지 兩精이 相合해서는 사람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만 神靈이 乘勢附託해야만이 人체를 이룬다고 인식하고 또한 "理不虛"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唯佛明言是可依"라고까지 결론지었다.

隨神往來者謂之魂 并精而出入者謂之魄(<太素> 卷六 <藏府之一> 人民衛生出版社 70~71項)

楊上善注: 魂者 神之別靈也 故隨神往來藏于肝 名曰魂 魄 亦神之別靈也 并精而出此而入彼 謂之魂也

살펴보면 所謂 "神之別靈也"는 上文의 楊注의 "靈者謂之神者也"의 의미와 서로 같은 것으로 모두 '神靈'을 지적하여 말하였다.

拘于鬼神者 不可與言至治(太素 卷十四 人迎脈口診 第266項 <素問·五藏別論>第78項에 "至治"가 "至德"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면 原文의 '鬼神'은 의심할 바 없이 迷信에서 말하는 '鬼神'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나 王氷注에서는 "志意邪則好祈禱 言至德則事必違 故不可與言至德也"라 하였다. 그는 鬼神을 숭배하는 것이 "志意邪"의 표현이라 인식하였지만 '鬼神'에 대해서 그 有無를 전혀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楊上善은 "若人風寒暑濕爲病 乃情繫鬼神 斯亦不可與言也"라 하여 이 條의 注釋은 본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原文에는 風寒暑濕으로 疾病이

된 것이 鬼神을 숭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楊注에는 鬼神이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鬼神도 病因이라고 긍정하였다.

道無鬼神 獨往獨來(太素 卷十九 知鍼石 第329項 素問寶命全形論 "獨往獨來"는 "獨來獨往"으로 되어 있다. 素問 第162項에 보인다.)

살펴보면 王氷注에 "隨應而動 言其效也 若影若響 言其近也 夫如影之隨形 響之應聲 豈復有鬼神之召遣哉 蓋由隨應而動之自得爾"라 하였다. 王氷은 여기에서 鬼神의 存在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鬼神에 "隨應而動"을 비유하는 숨은 뜻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楊上善의 注는 그렇지 않다. "應天地之動者 謂之道也 有道者 其鬼不信 故與道往來 無假于鬼神也"라 하였다. 注釋에 "有道者其鬼不信"의 句節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데 아마도 脫字가 있거나 '其'字가 '不'字로 되어 원래는 "有道者 不鬼不伸"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곧 이는 道가 있는 사람은 鬼神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下句에 "無假于鬼神"이라 말한 것이다. 의심할 것 없이 楊上善은 鬼神의 존재를 긍정하여 오직 道가 있는 사람만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先巫者 故知百病之勝 先知其病之所從者 可視而已(太素 卷二十八 諸風雜病 第525項)

楊上善注: 先巫知者 巫先于人 因于鬼神 前知事也 知于百病從勝剋生 有從內外邪生 生病者 用鍼藥療之 非鬼神能生病也 鬼神但可先知而已

上述한 것을 종합하면 楊上善의 세계관은 비록 儒佛仙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 佛敎를 숭배하여 부처가 만물의 주재자라고 믿어 그의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 세계관은 그가 <內經>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注釋중에 그는 많은 곳에서 매우 귀중한 지혜를 보여 주었으나 예석하게도 만족할 만한 발전이 없었다. 예를 들어 <鍼石注>에서 "從道生一 謂之朴也 一分爲二 謂天地也 從二生三 謂陰陽和氣也 從三而生萬物"(太素 卷十九 第327項)이라 하였는데 이는 매우 좋은 辨證에 관한 論述인데 本注와 기타의 注釋에는 모두 더욱 깊은 설명이 없다.

(3) “心不受邪”의 說에 반대함

《素問·靈蘭秘典論》에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이라 하였는데, 王冰注에 “任治于物(于是 어 조사에 속한다. 心이 사물을 용납하고 다스리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故謂之君主之官 淸靜棲靈 故曰神明出焉”이라 하였다. 한의학적인 이론에서는 心은 君主之官으로서 밖으로 病邪의 침입을 받을 수 없고 안으로는 病邪가 생할 수 없다. 따라서 <靈蘭秘典論>에서도 “故主明則天下安 以此養生則壽 沒世不殆 以爲天下則大昌 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形乃大傷”이라 하였다. 王冰注에 “主謂君主 心之官也”라 하였다. 이 이론은 《靈樞》에서 더욱 자세한 표현이 있다. <邪客篇>에서 “手少陰之脈獨無臉 何也 岐伯曰 少陰 心脈也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不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于心者 皆在于心中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故獨無臉焉”이라 하였다. 十二經脈에 자신의 特定穴인 五輸穴을 가지고 있으나 《靈樞·本輸》의 말에 의하면 心經에서 취하는 臉穴은 실제로 心包經에 속한 것이므로 <邪客篇>에서 “手少陰之脈獨無臉”라 하였다. <本輸>에서도 만약 心에 病이 있으면 곧 心包의 經絡이 영향을 받게되어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心에 病이 없으면 心包絡과 서로 편안히 處하여 脈氣가 평정하다고 하였다. 《靈樞》《素問》에서 모두 心主之官은 邪를 받을 수 없으며 邪가 있으면 臣使인 心包絡이 대신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君臣間의 마땅한 이치를 醫學에 결부한 것이다.

《太素》 卷九 <脈行同異>(第127項)의 앞부분 일단락에서 《靈樞·邪客》에 있는 관련된 段落을 인용하였다. 楊上善은 “心不受邪 心包代受”의 전통적인 이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박하였다.

其藏堅固者 如五臟中心有堅脆 心脆者 則善病消瘵 以不堅 故善病消瘵 卽是受邪 故知不受邪者 不得多受外邪 至于飲食資心以致病者 不得無邪 所以少陰心之主所生病 皆有瘵也 又《明堂》 手少陰亦有五輸主病 不得無輸 卽其信也 兌骨之端 手少陰之輸也

그는 여기에서 주로 사람이 五穀을 먹고 五穀이 心에 의해 자양되어 心이 이처럼 病을 앓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善病消瘵”은 즉 心이 邪를 받음으로써 출현하는 疾病이다. 心에 輸가 없다고 말한 것은 楊上善은 또한 부정확한 것이라 하고 兌骨之端이 心의 輸라고 하였다.

“心不受邪 心包代之”의 이론은 臨牀과 理論著作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楊氏가 辯論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卷八 經脈之一(《太素》第103項)에서 “心手少陰之脈 起于心中 出屬心系 下隔絡小腸”의 아래에 또한 거듭해서 “九卷心有二經 謂手少陰經 心主 手少陰經不得有輸”라 하였다. 그는 《靈樞》의 기록과 《十二經脈》과 《明堂流注》에서 말한 것이 같지 않은 것을 發明하였다. 그가 고찰한 결과 “有輸之說”을 따라야 마땅하다. 心臟이 邪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心藏不得多受外邪 其于飲食湯藥 內資心藏 有損有益 不可無也 故好食好藥資心 心卽調適 若惡食惡藥資心 心卽爲病 是以心不受邪者 不可(多)受邪也 言手少陰是動所生致病及 《明堂》有五輸瘵者 據受內資受外邪也(‘據’字는 文意에 따르면 ‘俱’字에 속한다.)

《太素》卷十二<榮衛氣行>에 “氣在于心者 取之手少陰經 心主輸”(第210項. 이 글은 《靈樞·五亂篇》에도 보인다.)

楊上善注: 其在于心 取手少陰經者 上經云 心不受邪 今氣在心 若爲不受邪也 若言邪在心之包絡 則應唯瘵手心主之經 何爲心病二經俱瘵 故知心者亦受邪也

소위 “心不受邪 心包代之”의 說에 대해서 楊上善은 주로 세 가지 면에서 반대하였다. 첫째 생활의 경험에서 볼 때 소위 “好食好藥資心 心卽調適 若惡食惡藥資心 心卽爲病”이라 하였고, 둘째 古代醫書를 고찰해 볼 때 《十二經脈》에 “手少陰經是動所生皆有諸病 俱言盛衰 并行補瀉”라고 하였고 또한 手少陰心經도 病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補

瀉法이 모두 있는데 어찌하여 心藏이 不受邪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明堂流注>에서 心藏에 五輸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므로 邪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임상 경험에서 더욱 확증할 수 있다. 그는 “若言邪在心之包絡 則應唯療手心主之經 何爲心病二經俱療”라 하였다.

(4) 文字學 訓古學 聲音學 등의 小學에 힘써서 注釋이 명확하다.

清代 學者 陸心源이 <儀順堂題跋>에서 楊上善의 注釋에 대해 “其語如漢人解經 疏通證明 訓詁精確 爲自來注醫書者所未見”이라 하여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그의 말이 매우 사실적이고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제 楊氏의 注釋으로 그 예와 특징을 차례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楊上善은 분명히 漢代의 大經學者와 訓古學者인 毛亨 鄭玄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陸德明의 <經典釋文>을 본받았다. 陸德明(서기 550?~630年)은 이름은 元郎이고 蘇州人으로 隋代에서 唐代까지 살아 國子博士를 지냈으며 가장 중요한 著作은 經典釋文 30卷으로 모두 漢魏六朝以來의 諸家의 音義를 수집하였다. 그 책은 隋 王朝가 들어서기 전에 완성되어 學者들이 그 책을 隋代에 찬집했다고 하는데 唐代에 크게 流行하였다. 玉海 卷42에서 舊書의 本本을 인용하여 “貞觀十六年甲辰(貞觀十六年은 甲辰이 아니고 마땅히 壬辰으로 해야 한다. 十八年이 甲辰이다. 十六年은 서기 642年이다.) 太宗閱德明經典釋文 美其弘益學者 賜其家布帛百匹”이라 하였다. <冊府元龜> 帝王部九十七에 “美其弘益學者”의 구절 아래에 “嘆曰 德明雖亡 此書足可傳習 因”이란 13字가 있는데, ‘因’字 아래에 “賜其可布帛百匹”의 7字가 이어져 있다. 陸德明의 經典釋文이 당시에 대단히 중시되어서 學者들이 傳習하는 책으로 받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經典釋文은 釋義 釋音을 하고 올바른 字形을 구별하였다. 가령 <莊子音義·德充符>에서 “兀 五忽反 又音界 李云 別足曰兀 案 篆書兀分字相似”라 하였다. 이런 注釋方法은 <太素>注에서 종종 나타난다. 가령 卷八 <陽明脈解>에서 “陽明厥則喘如悞 悞則惡人”의 注에 “悞 武榮反 此經中

爲悶字”, 卷八<經脈之一>에 “瘡泄孤疝 遺瀉閉癰”의 注에 “癰 篆文癰字 此經淋病也 音隆”이라 하였다. 楊上善注는 漢魏六朝와 隋代의 經學注釋의 전통이 醫學의 注釋으로 최초로 계승 운용 발전시킨 것이다.

둘째 醫理와 文理가 모두 완성된 결합이다. 이는 醫書의 注釋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가장 곤란한 점이다. 이러한 楊上善의 注釋의 특징은 지금까지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魄汗不盡 形弱而氣燥 穴輸已閉 發爲風痺 故風者百病之始也(卷三<調陰陽>) 楊注: 魄 肺之神也 肺主皮毛腠理 人之汗者(‘字’는 句中の 어조사이다. 楊氏는 흔히 이런 용법을 使用하였는데 아래에 자세하다.) 皆是肺之魄神所營 因名魄汗 夏傷于暑 汗出不止(‘止’는 ‘盡’으로 해석해야 한다. 毛亨 鄭玄은 항상 이런 訓詁方式을 사용하였다.) 形之虛弱 氣之衰損(衰損은 ‘燥’으로 해석한다) 淫邪藏于腠理 腠理已閉(楊氏는 ‘腠理’를 ‘穴輸’로 해석하였다. 이는 글자와 뜻이 같은 해석이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한 것으로 意譯에 가깝다.) 至秋得寒 內外相感 遂成風痺而氣燥 故風者百病始 燥 式藥反

其若不容 而出汗僂阻 使人偏枯(同上) 楊注: 阻 壞也 慈呂反 容 緩也 陽氣盛者 必傷筋痿緩 其若不緩 則冷汗偏出壞身 偏枯 不隨之病也

上述한 두 예에는 釋音 訓詞 解義 申講 등의 注釋方式을 갖추고 있고, 또한 원문의 醫學 原理와 文理를 해석하는 것을 동시에 잘 결합하였다. 다음의 한 단락의 注釋은 정확히 ‘眞藏’의 ‘眞’字를 해석한 예이다. ‘眞藏’의 ‘眞’字는 關鍵이 되는 글자이다. 한 글자를 정확히 訓詁하면 문장 전체가 뚜렷해진다. 楊氏가 말한 醫理는 모두 모두 文理를 정확히 해석한 기초에서 설명한 것이다. 卷六 <藏府氣液>에서 “見眞藏曰死 何也”라 하였는데

楊上善注:

無餘物和雜 故名眞也 五藏之氣皆胃氣和之 不得獨用 如至剛不得獨用 獨用即折 和柔用之即固也 五藏之氣 和于胃氣 即得長生 若眞獨見 無和胃氣 必死期也 欲知五藏進見爲死 和胃爲生者 于寸口診手太陰 即可知也 見者如弦是肝脈也 微弦爲平和也 微

弦 謂弦之少也 三分有一分爲微 二分胃氣與一分弦氣具動 爲微弦也 三分竝是弦氣 竟無胃氣 爲見眞藏也

‘眞藏’이란 말은 原文에 또한 <素問·玉機眞藏論>에 여러 번 보이는데 王冰은 더 注釋하지 않았으나, 林億은 上述한 全文을 王冰素問注에 인용해 보충하였으니 또한 탁견이라 할 수 있다.<素問> 橫排本127項)

셋째 語義를 注釋할 때 반드시 <說文> <爾雅> 등의 訓詁에 대한 전문서를 참고함으로써 글자만 보고 해석하거나 그 뜻이 반드시 그렇다고 고집하지도 않았다. 漢代에서 唐代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전통문학은 訓古學이 상승하는 시기여서 文字學 音訓學 訓古學의 저작이 이 시대에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精確한 注釋이 학계에 출현하였다. 이러한 注釋家の 공통적인 특징은 經學과 小學에 정통하였는데 한 字 한 字 해석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옛날에 쓰여진 말을 찾아서 音韻 訓詁로써 기준을 삼아서 엄격한 학풍을 이루었다. 楊上善이 저술한 시기가 訓古學者 顏師古 孔穎達과 시대가 비슷한데, 이러한 學術環境에서 그는 經典釋文의 注釋體系를 취하여 漢代 經學家의 모범이 되었고 訓詞 釋文가 정연하고 辭意가 근거가 있다. 이에 대략 몇 字의 注釋을 예로 들어 <說文>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眚 目眚(<衛五十周>注) <說文>目部同
- 腊 乾肉也(<五節刺>注) <說文>肉部同
- 顛 頂也(<經脈>注) <說文>項部同
- 頰 鼻莖也(<經脈之一>注) <說文>同
- 揭 舉也(<五藏命分>注) <說文>手部同
- 揄 引也(<骨空>注) <說文>同
- 措 置也(<五藏命分>注) <說文>同
- 瘖 不能言也(<經脈病解>注) <說文>广部同
- 醪 滓酒也(<知古今>注) <說文>酉部同
- 臙 尻也(<經脈病解>注) <說文>同
- 仁 親也(<痺論>注) <說文>人部同
- 骹 骨端曲貌(<氣穴>注) <說文>骨部同
- 澹 水搖也(<經脈之一>注) <說文>水部同
- 腫 俠脊肉也(<經脈之一>注) <說文>肉部同
- 標 末也(<知湯藥>注) <說文>木部同

- 積 聚也(<知官能>注) <說文>禾部同
- 矇 目不明也(<五節刺>注) <說文>目部同
- 窒 塞也(<十五絡脈>注) <說文>宀部同
- 紹 繼也(<經脈標本>注) <說文>絲部同

楊注에서 <說文>의 해석을 인용한 것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다만 몇 가지의 예를 들었을 뿐이다. 이 몇 가지 해설에서 <說文>이 고서를 해석하는데 대한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唐代 注釋家가 <說文>을 중시하였으며 당시의 학자들이 文字學 音韻學 聲音學 등의 小學에도 매우 깊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楊上善이 <說文>을 인용하여 <太素>를 注釋한 예는 매우 많다. 가령 對照를 통해서 楊注의 傳寫之誤를 改正할 수가 있다. 卷六 <藏府氣液> “女子胞”注에 “胞 豹交反 生兒褰也”라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說文>에서 인용한 것인데 <說文>에는 “我生褰也”라고 되어 있으니, 즉 初生兒의 胎를 ‘胞’라 한 것인데 “生我褰”라 되어 있어서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傳寫의 誤이므로 마땅히 <說文>에 따라서 改正해야 한다. 卷二十四 <眞邪補瀉> “氣行于脈中 循循然韞”주에 “韞 于忿反 車前橫木 循車行也 邪循脈行曰韞 有本作輶 非也”라 하였고, <說文>에는 “輶 輶車前橫木也”라 하였다. <說文>에 의하면 楊注의 “車前橫木”의 앞에 “輶”字가 있어야 한다. 卷二十三 <雜刺>에 “爲肝脹”注에 “肝 脚脛也”라 하였는데, <說文>에는 “肝 較也”(較 脛也 脚 脛也)라 하였으니 楊注에서 ‘脚’字를 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마땅히 <說文>에 의하여 삭제해야 한다. 卷十九 <知古今>注에 “醪 汁滓注”라 하였는데, <說文>에는 “汁滓酒”라 하였으니 “滓”字와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 쓰여진 것이다.

<說文>에서의 뜻은 기본적으로 그 글자의 본 뜻이다. 그러나 <內經>에서의 문자는 모두 그 글자의 본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다수의 경우에 그 引申되거나 비유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注釋家들이 그 引申하고 비유한 뜻을 더욱 잘 해석해야 한다. 만약 <說文>만을 인용

하여 注釋을 하면 引申되고 比喩된 글뜻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니, 이는 옛것에만 집착하여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본 뜻을 알았으면 또한 引申도 밝게 알아야만 大家가 될 수 있다. 楊上善이 注釋의 大家라고 칭할 만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病至則惡人與火(〈經脈之一〉) 注: 至 甚也

살펴보면 《說文》에 “至 鳥飛從高下至地也”라 하였는데 만약 그 뜻으로 해석해 보면 우습게 된다. 그러나 ‘至’는 ‘最’와 ‘甚’이라는 뜻으로 引申될 수 있으니 여기에서 ‘甚’으로 ‘至’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同篇에서 “抵伏兔” 注에 “抵 至也 丁禮反”이라 하였다. 살펴보면 《說文》에 “抵 擠也”라 하였으나 “至”의 뜻으로 引申된 것이다. 卷六 <五藏命分>에 “寤乎哉問也” 注에 “寤 奇殞反急也”라 하였는데, 《說文》에 “寤 迫也”라 하였으니 “急”으로 引申한 것이다. 卷十五 <尺診>에 “按其手足相隨而不起” 注에 “隨 焉 深反 深也”라 하였는데, 《說文》目部를 살펴보면 “隨 目深也”라 하였는데 모든 깊은 것을 일컫는 것으로 引申한 것이다. 이런 예는 매우 많아서 이루다 들 수 없다. 따라서 楊上善이 《內經》의 글뜻을 注釋한 것은 매우 엄격하고 뛰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內經》의 언어의 심오함과 난해함은 《內經》에서 언어의 비유를 잘 사용한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卷五 <陰陽合>에 “三陽之離合也 太陽爲關 陽明爲闔 少陽爲樞”, “三陰之離合也 太陰爲關 厥陰爲闔 少陰爲樞”라 하였다. 이 구절의 ‘關’ ‘闔’ ‘樞’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비유이다. 楊上善은 그 비유한 뜻을 해석하는데 능하였다.

三陽離合爲關闔樞以營于身也 夫爲門者具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膀胱足太陽脈主禁津液于皮毛故爲關也 二者門闔 謂是門扉 主關閉也 胃足陽明脈令眞氣止息 復無留滯 故名爲闔也 三者門樞 主轉動者也 膽足少陽脈主筋 綱維諸骨 令其轉動 故爲樞也

三陽爲外門 三陰爲內門 內門亦有三者 一者門關 主禁者也 脾藏足太陰脈主禁水穀之氣 轉納于中不失故爲關也 二者門闔 主關閉者也 肝藏足厥陰脈主水腎氣出入通應悲樂 故爲闔也 三者門樞 主轉動也 腎藏足少陰脈主行津液 通諸經脈 故爲樞者也

‘關’ ‘闔’ ‘樞’는 모두 門으로 비유한 것이다. 《說文》에 “關 以木橫之門戶者也”라 하였는데 빗장이라 이룸한다. 膀胱足太陽脈은 津液을 禁하고 脾藏足太陰脈의 기능은 水穀之氣가 遺失되지 않도록 禁하니 이는 두 經脈의 작용이 마치 빗장과 같아서 ‘關’字를 사용하여 太陽經과 太陰經의 기능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의심할 마 없이 매우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제 《素問·陰陽離合論》을 살펴보면 ‘關’이 ‘開’로 되어 있고, 《靈樞·根結》에서도 ‘開’로 되어 있다. 그러나 北宋의 林億은 <陰陽離合論>의 “太陽爲開” 注에 “按<九墟>太陽爲關 陽明爲闔 少陽爲樞”라 하였고 또한 “甲乙經同”이라 하였다.(지금의 <甲乙經>에는 ‘關’이 ‘開’로 고쳐져 있다.) <根結>에 “太陽爲開”의 上口에 “不知根結 五臟六腑 折關敗樞 開闔而走”라 하여 ‘關’ ‘闔’ ‘樞’ 셋을 함께 열거하였고, 또한 <太素·經脈根結>에도 “折關敗樞 開闔而走”라 하였는데 注에 “關樞闔不得有守 故陰陽失于綱紀”라 하였으니 또한 ‘關’字는 ‘樞’, ‘闔’과 대조하여 보아야 한다. 따라서 ‘關’字라고 해야 옳고 ‘開’字라고 하면 옳지 않다.

《說文》에 “闔 門扉也 一曰閉也”라 하였다. 闔으로 胃足陽明脈과 肝足厥陰脈의 작용을 비유하였는데 또한 좋은 비유이다. 《說文》에 “樞 戶樞也”라 하였으니 즉 지도리로 門의 轉動을 주관하는데 足少陽膽脈 足少陰腎脈이 骨을 묶고 각 經脈을 소통하는 것이 지도리의 작용과 유사하므로 비유한 것이다.

楊上善은 關闔樞 세 字에 대한 비유의 뜻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해석하였다. 이 외에 가령 ‘沂’ ‘沂如’ 등의 글자도 비유한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매우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넷째로 名物訓詁하고 古속에 능통하였다. 사물의 명칭의 특징, 命名의 원인을 해석하는 것을 ‘名物訓詁’라고 한다. 소리가 같은 글자를 가지고 사물이 이름을 얻은 원인과 이룸을 얻은 이치를 해석하였는데 牽強附會하기가 가장 쉽다. 東漢末 劉熙의 <釋名>은 聲音訓詁의 방법으로 사물의 명칭을 해석한 전문서적으로 가령 “痔 食也 蟲食之也”라 하였는데 그는 “痔瘡”이 따라서 痔라 불리



운 이유는 벌레가 먹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痔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였다. 聲音訓誥는 韓醫書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켰다. <難經集注>에 대량으로 聲音訓誥를 이용하였고, <本草綱目>에도 聲音訓誥가 全書에 걸쳐 매우 많았는데 후인들은 그 잘못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또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病名 處方名 藥名을 설명하기도 한다. 楊上善은 聲音訓誥의 방법으로 命名한 이유를 해석하지 않고 사물의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病名 輸穴名 經絡名의 命名原因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이 이런 訓誥의 방식에 비추어 보아 이름을 따라서 뜻을 구하여 종종 자신감 있는 해석을 한다. 이는 楊上善이 더욱 뛰어난 분야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魄汗 魄 肺之神也 肺主皮毛腠理 人之汗也 皆是肺之魄神所營 因名魄汗(〈調陰陽〉注)

膜筋 十二經筋及十二筋之外表膜分肉者 名曰膜筋也(〈人合〉注)

井 井者 古者以泉源出水之處爲井也 掘地得水之後 仍以本爲名 故曰井也 人之血氣出于四肢 故脈出處以爲井也(〈本輸〉注) 살펴보면 대 '井'은 인체 五輸穴의 하나이다. <靈樞·九鍼十二原>에 "所出爲井"은 인체의 脈氣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井輸는 肘膝關節 이하에 위치한다. 楊氏가 '井'의 命名原因을 해석한 것은 정확하다.

輸 輸 送致聚也 <八十一難>에 "五臟輸者 三焦行氣之所留止 故肺氣與三焦之氣送致 聚于此處 故名爲輸也(〈本輸〉注) 살펴보면 대 輸穴의 輸는 輸送 運輸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후에 '輸'로 쓰기도 하였다. 卷二十九 <津液〉注에 "輸 逆致也 水數入于口 逆于腸胃之中 化爲津液"이라 하였는데 楊氏의 名物訓誥에 의하면 '逆'은 잘못된字이며 마땅히 '送'으로 해야 한다.

合 <本輸> "入于尺澤 尺澤者 肘中之動脈也 爲合 手太陰經也" 注에 "如水出井 以至海爲合 脈出指井 至此合于本藏之氣 故名爲合 海與十輸 皆放于此 諸輸穴名義 已(〈明堂〉具解也)" 살펴보면 대 '合'은 인체 五輸穴의 하나로 肘膝關節 부근에 위치하여 脈氣가 여기에 이르면 점점 收藏되어 本藏의 氣와 合하므로 '合'이라 이름하였다. <靈樞·九鍼十

二原>에 "所入爲合"이라 하였다.

위의 注에서 "諸輸穴名義 已(〈明堂〉具釋也)"라 하였는데 이 한 句節이 매우 중요한 注이다. 그것은 <太素>와 <明堂>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력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舊唐書經籍志> <新唐書藝文志>의 기록에 의하면 楊上善은 鍼灸輸穴 方面의 저작인 <黃帝內經明堂類成> 13卷을 지었다. 이 책도 唐 중기에 일본으로 전파되어 중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없어졌다. 清代 學者 黃以周가 일본의 옛 책방에서 古書를 구하여 그는 "余購《太素》于日本 舊賈以所售本非足卷 乃以楊注《明堂》一卷混觀其中 余得之甚喜"라 하였다. 펼쳐서 살펴보니 <明堂>의 殘卷이 매우 적어 겨우 1권만 남았다. "今茲所得乃十三分之一耳 又何喜乎"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楊上善의 <明堂>의 殘卷이 중국에 다시 역수입되었다. 지금은 <明堂>이 겨우 卷一의 手太陰肺經 및 殘序 一篇만이 남아있다.

<明堂>의 殘序에 의하면 楊氏注 <太素>는 明堂을 撰하여 비록 두 책이지만 실제로는 짝이 되는 篇이라고 하였다. 그가 序에서 "血氣爲其宗本 經絡與導源流 呼吸運其陰陽 榮衛通其表裏"라 하였으니 經絡, 血氣, 榮衛 등등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 책의 卷數는 "以十二經脈 合爲一卷 奇經八脈復爲一卷 合爲十三卷焉"이라 하였다. 이 말은 新舊唐志와 서로 부합한다. <太素>와 <明堂>의 관계는 "太素 陳其宗旨 明堂 表其□(살펴보건대 아마도 '所'字가 빠진 것 같다.)見 是猶天一地二 亦漸通其妙物焉"이라 하였다.

<明堂>에는 經穴에 대한 名物訓誥가 매우 집중적으로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中府 一名膺中輸 膺 胸也 輸 委輸也 胸氣歸此穴 故謂之輸

天府 肺爲上蓋 爲府藏之天 肺氣歸于此穴 故謂之天府

胃大輸 輸者 安輸送致也 手太陰脈送胃大氣至于此穴 故曰大輸

俠白 白 肺色也 此穴在臂 候肺兩箱 故曰俠白 尺澤 澤爲陂澤 水鍾處也 謂尺從此向口有尺也 一尺之中 脈主此處 流動而下 與水同義 故名尺澤

魚際 大指本節後 象彼魚形 故以魚名之 赤白肉畔 故曰魚際也

手魚 腕前大節之後 形若魚形 故曰手魚也(《太素·本經》注)

蹻脈 蹻 高也 此脈從足而出 以上于頭 故曰蹻脈 (《太素·陰陽蹻脈》注)

楊上善 이후의 注釋家들이 매우 많아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楊上善을 본받아 이처럼 名物訓詁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미 거의 없는 것 같다.

다섯째 楊上善注는 재료가 풍부하고 古書를 많이 인용하여 증거를 대어 비교적 높은 考據價値와 문헌적 가치가 있다. 이 점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말하면 비록 裴松의 《三國志》注와 《文選》의 李注에 미치지 못하지만, 唐代的 사람의 注釋에 있어서 楊上善注의 史料가 풍부하며 또한 매우 특출하며 醫學著作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江水”條의 注는 《漢書·地理志》의 잘못을 개정할 만한 것이다. 通行本의 《地理志》는 蜀郡 瀘氏道 顧注에 “江水過郡七 行二千六百六十里”라 하였는데, 江水가 어찌 2680리에만 그치겠는가? 이제 《太素》 권오 <十二水>에 “手陽明 外合于江水 內屬于大腸”의 楊注에 “江水出蜀岷山郡升遷縣 東南流入海 過郡九 行七千六百六十里也”라 하였다. 이 注에서 말한 江水의 길이가 徐錯의 《說文繫傳》注에 “臣錯按 漢書蜀郡瀘氏道岷山在西徼外 江所出 東南入海 過郡九 行七千六百六十里”와도 합한다. 清代 段玉裁의 《說文》注에 徐錯의 注에 근거하여 《漢書·地理志》의 ‘七’을 ‘九’로, ‘二’를 ‘七’로 고쳤다. 지금 楊上善의 注에는 南唐시대 徐錯의 注가 더욱 유익함을 증명해 준다. 또한 《地理志》에 말한 “蜀郡瀘氏道岷山”은 즉 <禹貢>의 岷山이다. 楊上善 注의 “岷山”은 <禹貢>에 의하여 말한 것이다.

“一分爲二”라고 흔히 알고 있는 속어는 《太素》注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從道生一 爲之朴也 一分爲二 謂之天地也”(《知鍼石》注)라 하였다. 후에 宋代 二程과 朱子가 “一分爲二”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그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아니

다.

《太素》 卷十一 <氣穴>注에 《內經》에서 말한 穴名 取穴方法 등은 《扁鵲灸經》 등과 같지 않다. 注에 “至于《扁鵲灸經》 取穴及名字 即大有不同 近代《秦承祖明堂》 《曹氏灸經》 등 所承別本 處所及名 亦皆有異 而除病遺疾 又復不少 正可以智量之 適病爲用 不可全言非也”라 하였다. 《隋書·經籍志》를 살펴보면 《曹氏灸經》一卷이 있으나 《扁鵲灸經》 및 《秦承祖明堂》은 없다. 《隋志》에 기록된 秦氏의 저작은 《脈經》 六卷(注에 “秦承祖撰”이라 하였다), 秦承祖本草 六卷, 《秦承祖偃側雜鍼灸經》 三卷(注에 “亡”이라 하였다.), 《秦承祖藥方》 四十卷(注에 現三卷 失三十七卷이라 하였다.), 《偃側人經》 二卷(注에 “秦承祖撰”이라 하였다.)이 있다. 또한 《舊唐書經籍志》를 살펴보면 秦承祖의 《明堂圖》 三卷 및 《秦承祖藥方》 十七卷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楊氏가 말한 《秦承祖明堂》은 확실히 그 책이 있었으나 《隋書》에 실수로 기재되지 못하였고 《隋書》에는 《秦承祖藥方》이 겨우 세 卷만 존재하다가 《唐志》에 十七卷이라 한 것은 후에 발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太素》注에 기록된 고대의 經驗方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卷八 <經脈之一>注에 “燃磁石 療腎氣 重履引腰脚 故爲履重者 可用磁石分著履中 上弛其帶令重 履之而行 以爲輕者 可漸加之令重 用助火氣 若得病愈 宜漸去之 此爲古之療腎療法”라 하였다.

《太素》注가 내용이 매우 풍부하여 이상 5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오히려 겨우 몇 가지만 열거했을 뿐이다. 18세기말에 일본의 유명한 醫學者이며 醫學訓古學者인 丹波元簡(서기 1755-1801년)은 그가 醫學을 學習한 것은 訓詁와 王氷注를 入手하면서부터라고 말하였다. 그는 王氷注를 읽었는데 그 시절에 《太素》가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장남 丹波元胤과 차남 丹波元堅(서기 1795-1857년)은 중국의 文字聲音의 訓古學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醫書를 연구하는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두 형제는 모두 太素를 깊이 공부하였다. 이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경험

이다. 《內經》을 학습하는 것으로 말하면 《太素》를 입수하면서부터 비교적 먼저 《王冰注》를 얻기가 용이하였다.

《太素》를 읽으면 자연히 楊上善注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楊注는 종종 句中에 ‘之’ ‘者’ ‘于’ 등의 어 조사를 더하였는데, 그것들은 다만 音節을 나누는 작용만 하였고 어법상의 어떤 말을 사용하여 해석 하지 않았으니,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天之父也 降之以德 地之母也 資之以氣 德之與氣 具能生也”(《養生》注) “天之父也”는 즉 “天 父也” 인데 下句의 “降之以德”과 글자수를 같게 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之’字를 더한 것이다. 또한 가령 “人之汗者 皆是肺之魄神所營”이라 하였는데 ‘者’ 또한 어조사이다.

《太素》注의 訓誥는 王冰注와 비교하여 풍부하고 정밀하지만, 《經籍叢話》를 편집할 때 錢塘의 陸堯春 姜遂 등이 王冰注를 수록함으로써 訓誥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로 辭典類의 서적을 편찬할 때에 《太素》의 語義訓解에 마땅히 더욱 많은 증시해야 한다.

### III. 結 論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상에 나타난 《黃帝內經》에 대한 최초의 注釋은 齊梁間 全元起의 《素問訓解》로 알려져 있다.
2. 《素問訓解》는 비록 전해오지 않지만 문헌상의 기록을 통해 卷數와 目次에 있어서 魏晉 이래 《素問》 본래의 면모를 보존하고 있다.
3. 《素問訓解》는 楊上善의 《太素》 王冰의 注와 林億 등의 校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4. 全元적이 지은 《素問訓解》는 醫學 理致를 잘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語義에 대한 해석을 융합하여 전체의 내용을 적절히 개괄하였다.
5. 《太素》의 ‘太子文學’이란 글과 노자를 玄元 皇帝라고 칭한 것과 楊上善의 著作이 《舊唐書經籍志》에는 보이지만 《隋書經籍志》에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楊上善은 唐代의 인물임이

틀림없다.

6. 楊上善의 세계관은 비록 儒佛仙의 사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부처가 만물의 주재자라고 믿어 그의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7. “心不受邪 心包代之”의 說에 대해서 楊上善은 주로 세 가지 면에서 반대하였다. 첫째 생활의 경험면에서 “好食好藥資心 心即調適 若惡食惡藥資心 心即爲病”이라 하였고, 둘째 《十二經脈》에 “手少陰經是動所生皆有諸病 俱言盛衰 并行補瀉”라고 하였고, 셋째 임상 경험에서 “若言邪在心之包絡 則應唯療手心主之經 何爲心病二經俱療”라 하였다.

8. 楊上善의 《太素》는 漢代의 大經學者와 訓古學者인 毛亨 鄭玄 陸德明을 본받아 訓古學 文字學 聲音學 등의 小學에 힘쓰고, 《說文》 《爾雅》 등의 訓誥에 대한 전문서를 참고함으로써 注釋이 명확하다.

9. 楊上善의 《太素》는 소리가 같은 글자로 注釋하는 聲音訓誥와는 달리 事物의 名稱의 特徵, 命名의 原因을 해석하는 ‘名物訓誥’에 능하고, 재료가 풍부하고 古書를 많이 인용하여 증거를 대어 비교적 높은 考據價値와 문헌적 가치가 있다.

### 參 考 文 獻

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4. 錢超塵, 內經語言研究, 서울, 一中社, 1992
5.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6. 金赫濟 등 편저,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명문당, 1984